

‘𦵏, 𦵏, 再’ 문자 연구

이권홍*

【목 차】

- I. 서론
- II. ‘𦵏’ 풀이
- III. ‘再’와 ‘𦵏’의 풀이
 - 1. ‘再’ 풀이
 - 2. ‘𦵏’ 풀이
- III. ‘再’와 ‘𦵏’의 풀이
- IV. 결론

【초록】

卜辭에서 𦵏은 ①만나다[遇], ②祭名, ③人名, ④方國의 이름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再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무슨 뜻으로 썼는지 판명되지 않았으며, 𦵏은 ①祭名으로 祭物을 단에 올라 헌상하는 뜻, ②𦵏冊(칭책, 왕명을 받아 그 영을 전달하는 것), 제사를 지냄에 있어 천거하여 령을 전하는 의식, ③인명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갑골문 문장을 보면, 제사나 사람, 사람이 사는 곳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𦵏의 자형이 화톳불 형식으로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사 뜻을 갖는다. 再는 𦵏의 아랫부분과 상하에 횡으로 그은 한 획[一]을 더하여 만들어진 글자다. 𦵏 행위를 하면서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 봉례 하는 모양이 𦵏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제사를 봉행하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풀이된다. 𦵏과 𦵏, 再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모두 제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복사(卜辭), 요제(燎祭), 구(𦵏), 재(再), 칭(𦵏), 고석(考釋)

*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언어통상학과 교수 (lee@jeju.ac.kr)

I. 서론

清代『康熙字典』十二集에 47,035개의 한자가 수록돼 있다. 이는 한자가 갑골문에서 출발하여 오랜 기간 내려오면서 분량이 많아져 번다해지고 다양하면서도 난해해 졌다는 것을 대변한다.

현재 중국 대륙은『現代漢語常用字表』의 ‘상용자 부분’을 보면, 2,500자를 상용자로 하고 있고, 臺灣은『常用國字標準字體表』에서 4,808자를 상용자로 하고 있으며, 香港은『常用字字形表』에 따르면 4,759자를 상용자로 해두고 있다. 물론 ‘最常用字’라 하여 500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생활에서 꼭 필요한 상용한자를 아직까지 확정시킬 수 없을 만큼 난해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한자 글자체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다. 甲骨文을 시작으로 金文, 大篆, 小篆을 거쳐 한대에 文字學에 있어 일대 변화를 줬기에 ‘隸變’이라 부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자의 기본적인 틀을 이룬 隸書 시기를 지나 正書인 楷書體로 완성 된다.

일관된 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正變의 규율 속에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본 틀을 찾을 수 있지만, 訛變을 거친 글자들은 일정한 틀을 찾아내기가 어렵다. 다양하다는 범주를 넘어 번다한 양태를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한자는 발생에서 변화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 까지 나름대로의 틀이 있고 그 틀 속에서 의미의 인신, 파생을 이루었다. 이는 한자의 原流를 파악하면 그 한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자의 원류라 함은 原字를 말한다. 한자는 갑골문에서 비롯됐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았다. 六書의 기본적 틀은 이미 갑골문에서 형성됐다는 게 일반적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갑골문을 중심으로 그 한자가 어떤 형태를 갖춰 의미를 창출했는지를 고찰하고, 그 의미가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고 파생, 발달했는지를 파악한다면 현재 한자를 학습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자를 설명할 때 원전으로 활용되는 것이『說文解字』이다.『說文·葍部』에 ‘葍, 𠄎, 再’가 수록돼 있다. 이 세 한자는 여러 학자들이 해석하였지만 아직까지 의혹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한자들을 확실하게 해석해야 ‘構, 構, 邁, 簞, 講’과 ‘稱, 稱’ 등의 한자를 이해할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葍, 再, 𠄎’ 중 ‘再, 𠄎’ 두 글자의 형태는 葍자의 部件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 글자를 이해함에 있어 葍가 문제의 초점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논문은 葍를 중심으로 그 원류를 찾아 그 뜻의 시작과 파생된 의미를 고찰하여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葍자의 갑골문 형태를 고찰하여 葍의 본의를 찾고, 나아가 葍와 연관돼있는 再, 𠄎의 본뜻을 찾아본다.

II. ‘葺’ 풀이

葺의 음은 ‘구[gòu]’이고, 그 자형은

① 葺 ② 葺 [舊體]

이다. ②는 구체로 원래 本字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楷書이기는 하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글자 모양은 ①이다. 이 형태①는

葺[小篆] 葺 葺 葺[大篆] 葺[金文]

의 변화 발전된 형태이다. 이는 갑골문의

① 葺 葺 葺 葺 葺 葺 葺
② 葺 葺 葺 葺 葺 [甲骨文]

형태가 발전된 모양이다. 크게 보면 2가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하나는 ①로 상하 대칭형의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②처럼 발의 형태[止]나 길을 가는 형태[走], 아니면 길의 형태[彳]와 결합된 모양이다.

『說文解字』는 “목재를 교차되게 쌓아올리는 것이다. 맞대어 교차하는 모양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집과 같은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재를 교차하여 쌓아올린 모양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段玉裁注」는 “『淮南』 高注에서는 ‘세우다 이다. 재목을 서로 올려 세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葺를 이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지금 構를 쓰고, 葺는 쓰지 않는다. 「木部」에 ‘構구는 짓다 이다’라고 했지만, 뜻이 다르다.”라고 풀이²⁾하고 있다.

짓다 뜻을 가지고 있는 構의 원자로 보지 않고, 다른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단순히 목재 등을 ‘어긋매끼어 쌓다’ 뜻을 나타내는 글자로 본 것이다. 이에 王筠은 『說文句讀』에서 “교차한다는 것은 가옥 자재 구조가 반드시 서로 교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쌓는다는 것은 집을 올림에 필히 여러 재료를 쌓아올려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글자는 다섯 개 틀의 형식이 나, 마룻대[棟耳]는 만들지 않았다. 4개의 橫은 집 전후 4개의 도리이다. 4개의 縱은 서까래이다. 가운데 丨은 집 전후가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나타낸다.”³⁾라고 하였다. 원래 葺는 단순히

1) 字體는 『甲骨文字典』, 『形音義綜合大字典』, 『甲金篆隸大字典』, 『甲骨文字詁林』, 『甲骨文小字典』, 『新華字典』을 기본으로 하였다. 갑골문이나 금문은 원본을 기틀로 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제2차 자료인 工具書와 연구서적을 중심으로 자체를 인용, 자료로 삼았다.

2) 『說文』: 葺, 交積材也. 象對交之形. 「段玉裁注」: 高注『淮南』曰: ‘構, 架也. 材木相乘架也.’ 按結葺當作此, 今構字行而葺廢矣. 「木部」曰: ‘構, 蓋也.’ 義別.

3) 王筠, 『說文句讀』: 交者, 屋材結構, 必相交也. 積者, 架屋必積衆材而成也. 此字乃五架之形, 但未作棟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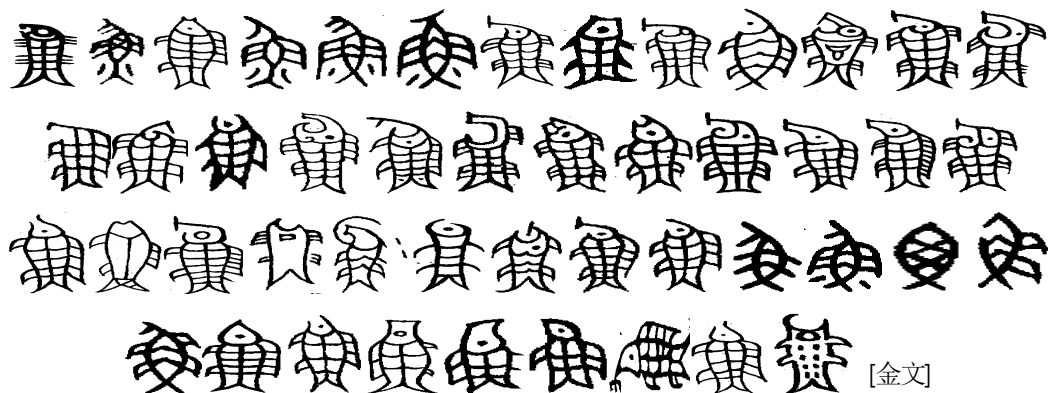
목재를 교차되게 쌓는 모양에서 출발한 것인데, 나중에 건축물을 짓는 것으로 발전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집의 형태를 그대로 본뜬 글자라 파악한 것이다. 이런 해석은 갑골문이 발굴되기 이전의 글자 형태를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오류이다.

李孝定은 『甲骨文字集釋』에서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만나는 형태가 아닌가 싶다. 만나다 [遭遇]라는 의미의 本字이다. 𩺰을 붙여 遘를 만드는 것은 변체이다. 이 설은 증거가 없는데 일단 함부로 말을 해놓고 이후의 연구를 기다려본다. 당란과 괘말약은 이 글자에 대해 모두 달리 설명하고 있다.”⁴⁾고 하였다.

물고기 두 마리가 만나는 모양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갑골문에서 물고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물고기를 나타내는 글자는 ‘魚’이다. 魚⁵⁾는



으로 돼 있다. 물고기 모양의 변형이다.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魚의 金文을 보면,



이고, 갑골문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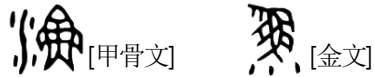
四橫, 屋之前後四櫳也; 四直, 椽也; 中丨, 以見屋之前後相牽連.

4)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疑象二魚相遇之形. 爲遭遇之本字. 從辵作遘者, 其繁文也. 惟此說殊无左證, 姑妄說之以俟考. 唐蘭郭沫若于此字均別有說.

5) 魚 어 yú 고기. 물고기: 水蟲也. 象形. 魚尾與燕尾相似. 凡魚之屬皆從魚. 【注】作𩺰. 𩺰, 古文. 『說文解字』

으로 이는 『甲骨文小辭典』에 나타난 형태이다. 다른 형태⁶⁾를 다 봐도, 역시 물고기 모양을 그대로 본뜬 상형자임을 알 수 있다. 물론 ‘𩺰’이나 ‘𩺱’의 간단한 형태도 있으나, 𩺰의 갑골문과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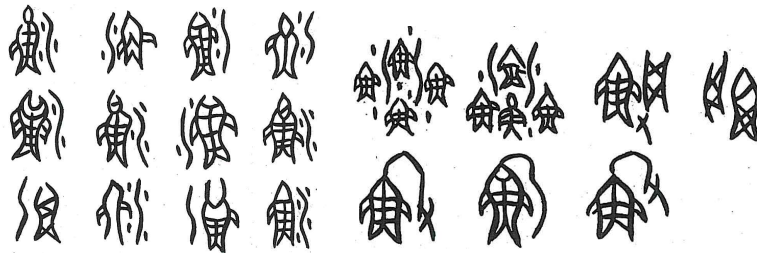
다른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다 뜻을 가진 글자가 ‘漁’이다. 漁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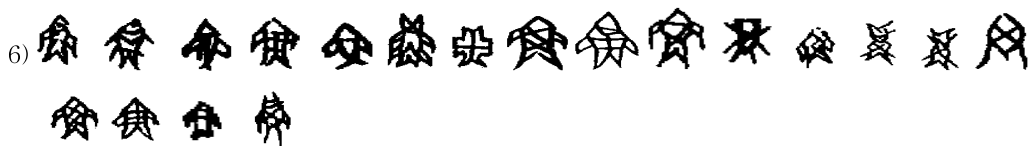
이다. 금문은 약간 형상성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금문은



으로 손과 물고기 모양, 혹은 물이 포함된 모양으로 돼 있다. 갑골문을 보면 다음(『甲骨文小辭典』)과 같이 돼 있다.



물고기 모양과 물[水], 그리고 낚싯대와 손, 혹은 어망의 모양⁷⁾이 어우러져 있다. 물고기 모양을 보면 𩺰의 갑골문과 같은 형태는 찾기 힘들다. 이는 𩺰의 모양과 漁 중의 물고기 모양은 다른 형태에서 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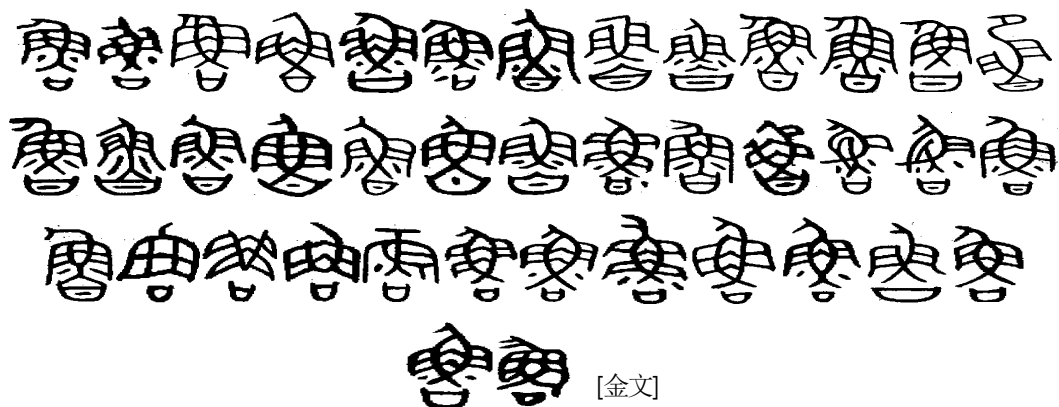
『甲骨文在線字典 Chinese Etymology』 (<http://www.chineseetymology.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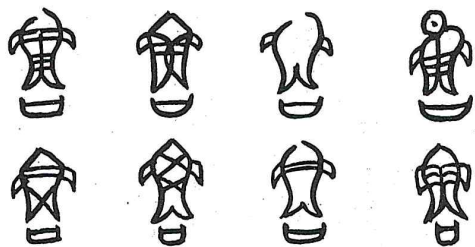
『甲骨文在線字典 Chinese Etymology』 (<http://www.chineseetymology.org>)

이런 형태도 자세하지는 않지만 물고기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물고기 모양이 ‘𩺰’의 형태와 닮은 꼴을 찾기 힘들다.

다른 하나를 보면, ‘魯’이다. 魯는 현재 노둔하다, 미련하다 뜻을 갖고 있는데, 원래 그 의미를 보면



물고기 모양 아래 ‘曰’이나 ‘口’의 형태가 놓여있다. 이 금문 이전 갑골문⁸⁾은



인데, 물고기 아래에 口가 놓여 있다. 口를 입이나 삶의 터 따위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祭器 뜻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로는 “회의다. 갑골문은 魚와 口로 돼있는데, 口는 그릇 모양이다. 전체 글자 모양은 고기가 그릇 속에 있는 형태다. 본의는 물고기 맛이 좋다, 근사하다 뜻이다.”⁹⁾고 풀이하였으나, 단순히 물고기와 그릇이라 보기는 힘들지만, 이런 형태에서도 역시 물고기 모양이 藁와 닮은꼴을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徐中舒는 『甲骨文字典』에서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만나는 모양을 닮아있어, 만나다 뜻을 가지게 되었다.”¹⁰⁾고 풀이하였다.

그 이유는 물고기 토렘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데서 비롯된다. 신석기에 해당하는 反坡시기 모계 씨족사회는 물고기로 상징되는 생식기 숭배가 일상적이었다. 물고기 무늬[魚紋]나 人面魚, 網紋 등이 발굴되었는데, 모두 물고기 토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물고기의 의미는 女陰을 상징한다. 물고기의 윤곽과 여음의 윤곽이 비슷하고 알을 많이 낳는 데서 번식력이 강함을 상징한다.

8)  [甲骨文]



『甲骨文在線字典 Chinese Etymology』 (<http://www.chineseetymology.org>)

9) 會意. 甲骨文從魚, 從口, ‘口’象器形. 整个字形象魚在器皿之中. 本義: 魚味美, 嘉. (『新華辭典』)

10) 徐中舒, 『甲骨文字典』: “象兩魚相遇之形, 以會遭遇之意.”

『周易』에도 ‘貫魚’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또한 생식기 숭배 유풍을 알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한다. 물고기를 꿰다는 말인데,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유풍이 갑골문에 보이게 되고, 그것이 𦰩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즉 남녀가 만나거나 성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甲骨文字詁林』에서 姚孝遂는 “‘𦰩’자를 맞대어 교차하는 모양이라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형태를 따왔는지에 대해서 꼭말약은 簞의 初文라 한 바, 일설로 삼을 만하다. (서산은 꼭말약이 “내가 𦰩를 簞의 초자라 하는 것은 대나무 焙籠을 닮았기 때문이다. 윗부분은 배롱이고, 아래는 발이다. 오늘날 일반에서 ‘높은 발 광주리’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부연하였다.)……어떤 이들이 𦰩는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만나는 것을 닮았다고 보는데, 그런 설명은 옳지 않다. 글자와 魚는 관련이 없다.”¹¹⁾라고 부연 설명하였다. 역시 물고기 모양으로 보는 것은 오류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𦰩를 溝의 本字로 보는 경우¹²⁾도 있다. 𦰩의 갑골문은 으로 서로 마주한 물고기를 잡아 담는 종다래끼 즉 ‘어룽’ 형태라 설명하기도 한다. 은 어룽 밖으로 노출된 물고기 지느러미라고 본 것이다. 조자의 본의를 고기를 잡기 위해 어룽을 던져놓은 산골짜기 사이의 물도랑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𦰩자의 모양은 대체적으로 4가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하나는 단옥재의 ‘가옥(집을 짓다)설’이다. 그러나 단옥재가 근거로 하는 것은 이미 訛變된 전서에 두고 있다. 그렇기에 이를 가지고 원형을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는 이효정의 ‘물고기 두 마리’설이다. 그러나 갑골문의 魚자 및 魚를 가지고 있는 여러 글자를 검토해본 결과 𦰩에 포함된 형태와는 다르다. 유사성을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물고기 모양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도 그리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는 꼭말약의 ‘簞籠’설이다. 그러나 단순히 높은 발 광주리로 보이지 않는바 이 설명도 납득하기 힘들다. 넷째는 象形字典의 대바구니 설로 전자와 마찬가지로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 다른 견해¹³⁾는 𦰩의 갑골문 형태는 늘어뜨린 원추처럼 쌓아놓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화톳불(한데다가 장작 따위를 모으고 질러 놓은 불)’을 붙이기 위해 나뭇가지를 쌓아놓은 형태로 보는 경우이다.

화톳불은 넓은 공터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불을 붙이기 전에 먼저 나뭇가지들을 원추형으로 쌓아놓는다. 이렇게 해야 중간이 비어 공기가 통하면서 불이 잘 붙기 때문이다. 갑골문 𦰩는 상하 두 부분이 대칭형으로 돼 있다. 𦰩자 아랫부분은 4개의 직선 형태로 구성돼 있는데, 2개의 직선은 공히 나뭇가지 모양을 표현하고 있고, 4개 직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 원추형 모양으로 들쭉날쭉 쌓아놓은 나뭇가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상형자를 만들 때 사용하던 투시법은 기본상 산점 투시법이다. 그런데 몇몇 글자는 다른

11) 『甲骨文字詁林』, 姚孝遂按語: “至于‘𦰩’字對交之形究竟何所取象, 郭沫若以爲即簞之初形, 可備一說. (徐山按: 郭沫若云: “余謂𦰩乃簞之初文, 象竹簞之形, 上体爲簞, 下体爲座脚, 今俗所謂‘高脚筲’也.”) ……或以爲‘𦰩’象兩魚相遇, 其說非是. 字與‘魚’無涉.

12) 『象形字典』: <http://www.vivdict.com>

13) 徐山, 「釋“𦰩、再、𦰪”」, 『中國文字研究』, 第5輯, 2006.4.

방향의 투시 관점으로 객체를 관찰한 후 평면 위에 통합 조정하는 형태를 보인다. 예를 들어, 두 바퀴 모양이 원형으로 돼 있는 ‘車’라든지, 건축물이 상반되게 대치형태를 이루는 ‘郭’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화톳불을 등진 관찰자의 부분은 평면적인 자형으로 나타낼 때 藁자의 윗부분에 놓아 아랫부분과 대치하는 형태로 구성하고, 상하 두 부분이 뿔뿔하게 나오게 하여 대점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많은 나뭇가지를 원추형 모양으로 취합하여 쌓아올린 모양이 대치하는 형태를 취했다는 것이다.¹⁴⁾ 물론 “갑골문에서 藁는 두 나무 부분이 서로 맞대고 있는 곳을 새끼로 묶은 모습을 본뜨고 있다. 그래서 이 藁는 주로 어떤 두 사물이 접촉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¹⁵⁾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재목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서로 어긋나게 걸치거나 맞춘 ‘어긋매끼어 쌓은’ 원추형의 대치된 모양이라 하겠다.

藁자는 卜辭 즉 갑골문 문장에서는 祭祀의 뜻¹⁶⁾으로 썼다. 예를 들어 “在四月, 藁示癸.”(『甲骨文合集』 26486)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藁示癸”란 선왕인 示癸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말로, 藁가 곧 제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바로 ‘燎祭’이다.

중국 殷商 시기 이미 燎祭가 있었다. 최초 燎祭는 은상 시기 祭祀制度 중 祭法의 하나로 땃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 지내는 제사¹⁷⁾를 말한다.

寧夏의 民謠에 “正月二十三, 燎騷干.” 구절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줄여 ‘燎干’이라 한다.¹⁸⁾ 정월 23일 밤, 마을 공터에 땃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붙여 춤을 추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제사이다. 불이 꺼지고 나서, 그 재를 휘날리며 수확을 점친다. 이런 燎干의 풍습은 寧夏에 국한되지 않고 陝西, 甘肅, 山西, 內蒙古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하여 중국 서북부 지역에서 성행했다.

이 燎干의 연원이 燎祭이다. 燎祭를 ‘柴祭’라 하기도 한다. 이런 祭祀를 지냄으로써 은상 시대의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지칭하는 ‘紫’자를 만들어냈다. 『說文解字』는 “紫는 쉼을 사르고 햇불을 사라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燒柴焚祭以祭天神)”라고 풀이하였다.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왜 나무 등을 태웠을까? 천신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땃나무를 태울 때 인간이 소원이 담긴 불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닿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라 추론한다. 인간의 정성을 표시하기 위해 제물을 불 위에 놓기도 했다. 고기가 익는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 신과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했던 것이다.

14) 徐山, 「漢字的方向、位置和筆順」, 『古漢語研究』, 1998年 第1期, pp.25-29.

15) 許進雄, 조용준역, 『중국문자학강의』,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p.230., p.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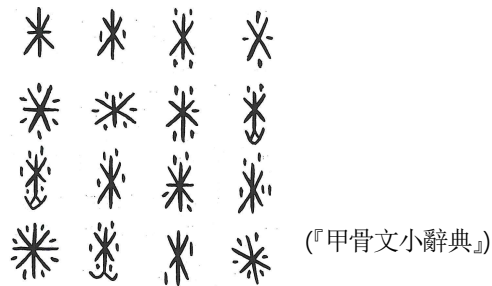
16) 毛天哲, 「毛氏源流考」(<http://cache.baiducontent.com/>)

17) 許科, 「古代燎祭用物及其意義」,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年 第3期.

18) 李智君, 「社會經濟環境與庶民的時間生活—以河隴節慶習俗的地域結構爲例(1616—1949)」, 『清史研究』, (2006年 第4期).

燎祭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단지 『尚書』의 『虞書』에 虞舜이 계위 후 동방을 순시했는데 泰山에서 ‘柴祭’를 거행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후 이런 제법이 고정화되어 天子가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먼저 ‘燔柴’하여 하늘에게 고했다. 明清시기 皇帝가 祭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땔나무를 태워 제신을 맞이하는(燔柴迎帝神)’ 것이었다.

이런 풍습은 갑골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燎’ 자가 그것이다. ‘燎’의 원자라 풀이를 하는데, 아래는 불[火]이고 위부분은 나무[木]로 나무 옆에는 점의 모양이 첨가돼 있거나 불이 생략된 형태이다. 나무에 불이 붙을 때 불꽃이나 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이런 것으로 볼 때 燎祭는 황하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민족이 보존하고 있던 오래된 풍습임을 알 수 있다.

고대 중국은 계급사회였다. 국가는 큰 일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제사이고 또 하나는 전쟁이었다. 제사는 아무렇게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제사에도 등급이 있었다. 天子는 天地에 제를 지내고, 诸侯는 社稷에, 大夫는 祖宗에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위 계급은 아래 계급의 제사를 겸할 수는 있어도 아래 계급이 위 계급이 지내는 제사는 할 수 없었다. 본래 天子란 하늘의 아들이기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천자뿐이었다.

그렇기에 일반 백성은 하늘에 존경을 표하거나 소원을 빌 때 천자의 특권을 함부로 범할 수 없었다. 그래서 燎干의 풍습이 생겨난 것이라 본다. 고대 한자 중 ‘干’, ‘乾’, ‘幹’은 통용되었다. 乾는 八卦 중 天의 상징이고, 干도 天神을 가리켰다. 따라서 燎干이라 함은 화톳불을 피우는 방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民間의 祭天 儀式이라 할 것이다.

원래 燎祭의 대상은 天神으로 殷나라 사람들은 燎祭를 자주 지냈다. 그 중요한 목적은 求雨이다. 원래 燎祭 儀式은 땔나무를 태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태우면서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었다. 燎祭 의식 중 ‘焚人’ 현상은 땔나무를 태우는 것보다 경건했고 장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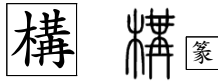
이런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燎祭는 후에 선왕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蒿의 字形이 화톳불 형태로 燎祭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蒿는 祭祀의 뜻을 갖는다.

蒿자는 卜辭 중에 ‘遭遇’ 뜻으로도 썼다. 예를 들어 “今日辛,王其田,不蒿大风.”(『甲骨文合集』28556)이 그것인데, 이중 “不蒿大风”이라 함은 큰 바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렇듯 蒿의 遭遇 뜻 역시 蒿의 祭祀의 뜻에서 유래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燎祭의 화톳불의 불꽃이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목적은 하늘에 있는 제사 대상인 천신을 만나 사람의 소원을 전달하여 보우 받으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의 바람이 천신과 만나야 될 것이고,

그 매개체가 연기나 불꽃으로 ‘만나다’ 뜻을 갖게 되는 것이다.

構자는 갑골문 문장에서 ‘발[止]’를 아래에 놓거나, 옆에 ‘길[彳]’이나 ‘길을 가다[走]’ 등 행위의 뜻을 나타내는 部件을 더한 형태도 있다. 이 부건 뜻 또한 화톳불의 불꽃이나 연기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천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천신에게 사람의 소망이 전달되고 만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卜辭 중의 邁도 祭祀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邁上甲, □五牛.”(『甲骨文合集』 36530)가 그것이다. 또한 邁도 “王其田, 邁大風, 大吉.”(『甲骨文合集』 28554)과 같이 邁遇 즉 만나다 뜻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構와 邁는 통용되었다.

그래서 『說文解字』에서도 構를 “재목을 어긋매끼어 쌓다 뜻이다. 서로 어긋나게 걸치거나 맞춘 모양이다.”¹⁹⁾라는 해석을 한 것이다. 실상 이러한 풀이는 옳다. 화톳불은 땔나무를 어긋매끼어 쌓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형태에서 비롯되어 어긋매끼어 쌓다 뜻을 가지게 되었고 계속 그런 뜻이 인신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재목을 어긋매끼어 쌓는 이유는 퇴색되어 그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 본의는 살아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構’도 構에서 파생된 글자라 풀이한다. 더해진 形符인 木은 화톳불[構]의 재료 속성을 더 명확히 한 글자이기 때문이다. 構는 전적 중 최초의 용법은 재목을 쌓아 집을 짓다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書·大誥』에 “(만약)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고 작정하여 이미 방법을 마련해 두었더라도 그 아들이 집터를 닦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하물며 어찌) 집이 세워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²⁰⁾라 하였는데 여기서 構가 곧 그 뜻이다. 이는 構의 자형과 ‘篝火’의 뜻이 인신된 의미라 할 것이다. 재목을 쌓아 집을 짓는 것과 화톳불을 피우기 위해 나뭇가지들을 어긋매끼어 쌓는 것은 작업 과정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 파생된 것이라 풀이한다.

III. ‘再’와 ‘冪’의 풀이

1. ‘再’ 풀이

『說文解字』에서 “再는 한번 하고 또 하다 뜻이다. 一과 구의 생략형으로 돼 있다.”라고 하였다. 段玉裁는 “무릇 二라고 말하는 것은 쌍이 되는 말이다. 再라고 하는 것은 중복의 말로


19) 『說文』 交積財也. 象對交之形. 『韻會』 數也. 十秭曰構. 『韻會』 邑名. 又中構, 宮中構結深密之處. 『詩·鄘風』 中構之言. 『前漢·梁共王傳』 聽聞中構之言. 『註』應劭曰: 中構, 材構在堂中. 顏曰: 舍之交積材木, 蓋闔內隱奧處.

20) 『書·大誥』: 若考作室, 既底法, 厥子乃不肯堂, 矧肯構.

한 번 하고 더 하다 뜻이다.”²¹⁾라고 풀이하였다.

그리고 姚孝遂는 『甲骨文字詁林』에서 “갑골문의 再자는 𠄎의 생략형에서 비롯되었다. 당란은 再가 ‘질그릇이 엮어진 모양’과 닮았다고 생각했으나, 곽말약은 그 잘못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곽씨(곽말약)가 再는 바구니 일종[籩]의 받침이라 하였으나 이 설 또한 옳지 않다. 籩의 형태는 상하가 같은데 아랫부분이 받침이라 함은 적절치 않다. 복사는 불완전하여 쓴 뜻이 명확하지 않다. 李孝定은 『集釋』에서 여러 학자들의 잘못을 상세히 설명을 하였는데 그 견해가 명확하다.”²²⁾라고 하였다. 이런 판단은 정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再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

再의 楷書와 小篆은

再[楷書]  [小篆]


이다. 古文(大篆)과 金文은

再 𠄎 𠄎 𠄎 [古文(大篆)]
𠄎 𠄎 𠄎 [金文]

이며, 갑골문은



이다. 再의 갑골문은 2가지 형태다. 하나는 𠄎의 아랫부분으로 돼있는 원추형으로 나뭇가지를 쌓아 늘어뜨린 화톳불 장작더미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𠄎의 아랫부분 형태의 위와 아래에 횡으로 한 획 ‘一’의 형태를 더한 모양이다. 여기 상하의 一은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고 풀이한다. 즉 화톳불 장작더미는 지상에 설치돼 있고, 화톳불 불꽃이나 연기가 하늘에 닿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會意字로 보는 것이다.

물론 再의 갑골문  을 고기를 잡는 대바구니 모양이라 설명²³⁾하기도 한다. 나팔 주둥이 모양의 어룡 𠄎에다 깔때기 모양인 𠄎을 더 해 물고기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 형태라고 봤다. 고기를 잡을 때 어룡을 반복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재차라는 뜻을 갖게 됐다고

21) 『說文解字』: 一舉而二也。從一, 𠄎省。段玉裁注: 凡言二者, 對偶之詞。凡言再者, 重複之詞, 一而又有加也。

22) 姚孝遂, 『甲骨文字詁林』: 甲骨文再字從𠄎省, 唐蘭以爲再象‘覆甗之形’, 郭沫若已辯其非。但郭謂再爲籩籠之座, 說亦非是。既謂籩形上体與下体相同, 則下体不當爲座。卜辭殘缺, 用意不詳。李孝定在『集釋』中詳說諸家得失, 極有見地。

23) 『象形字典』: <http://www.vividict.com>

설명하는 것이다. 晩期로 오면서 상하에 一을 더하여 𠂔의 형태가 됐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갑골문 형태를 볼 때, 『說文解字』에서 “一과 𠂔의 생략형으로 돼 있다.”는 해석 중 𠂔의 생략형을 따르는 것은 옳으나, 一과 합자의 형태로만 파악하는 것을 따르기 힘들다. 이는 글자 변화 발전 과정에서 小篆 해석을 따르는 것으로 원 글자의 형태를 파악하지 못한 까닭이다.

『說文』에 “한 번 하고 또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一擧’는 ‘一’을 따르다에서 비롯되었다. 一擧의 擧는 들다 이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再가 𠂔의 생략형이기 때문에 再의 형태 의미와 𠂔는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𠂔를 『說文』에서는 “재목을 어긋매끼어 쌓다”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렇게 쌓은 과정에서 ‘재목[材]을 ‘들어[擧] 옮기어 쌓는 것이기에, 一擧라고 해석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說文』에서 再를 ‘두 번[二]’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다. 再는 ‘두 번’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左傳』에 “첫 번째 북 소리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두 번째 북소리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세 번째 북소리는 용기를 없애버린다.”²⁴⁾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번째’의 再가 그것이다.

이렇듯 再가 擧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글자 자체에 손동작을 나타내는 ‘手(才, 又, 𠂔)’의 部件이 더해지지 않은 것은 再 자체에 ‘두 번째’, ‘재차’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2. ‘再’ 풀이

『說文解字』는 “再은 한꺼번에 들다 뜻이다. 爪와 𠂔의 생략형을 따른다.”라고 해석 했다. 段玉裁는 “𠂔는 들이고, 爪는 손이다. 한 손으로 둘을 들었으니 ‘한꺼번에 들다[竝擧]’라 한 것이다. 『孟子』 趙岐 註釋에 ‘稱貨’를 풀이하기를 ‘稱은 들다 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손으로 들다는 ‘再’을 써야 하고, 칭송하다 뜻은 ‘偁’을 써야 하며, ‘가늠하다’는 ‘稱’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稱’자로 통용하여 쓴다.”²⁵⁾라고 注를 달아 그 뜻을 명확히 하였다.

小篆을 보면,

𠂔_[小篆] 再_[楷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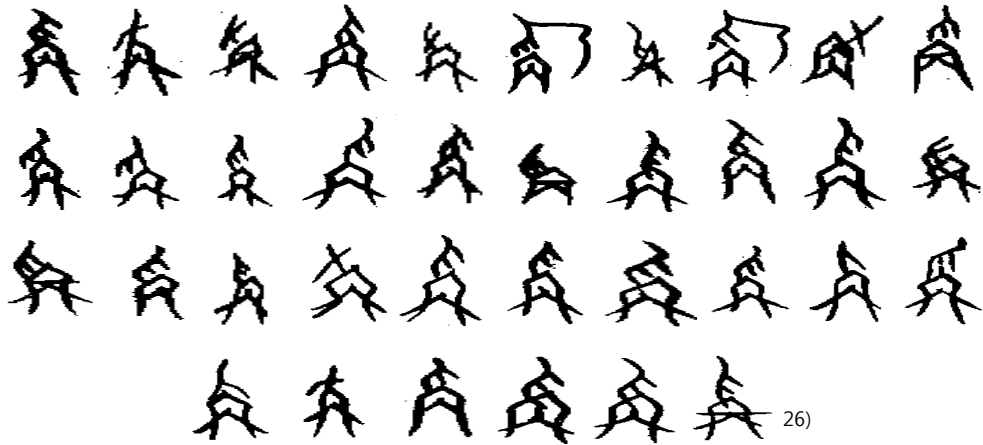
으로 爪와 𠂔의 아랫부분 합자로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형태는 金文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金문은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_[金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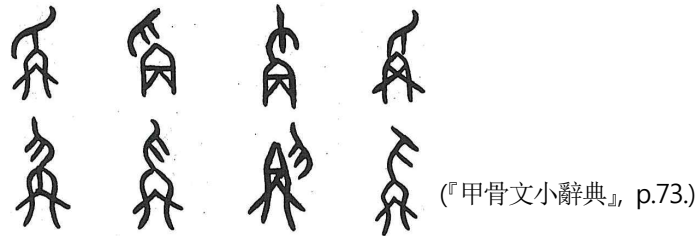
24) 『左傳莊公十年』「曹刿論戰」：夫戰，勇氣也。一鼓作氣，再而衰，三而竭。

25) 『說文解字』：并擧也。從爪，𠂔省。段玉裁注：“𠂔爲二，爪者手也，一手擧二，故曰‘并擧’。趙注『孟子』‘稱貨’曰：稱，擧也。凡手擧字當作‘再’，凡偁揚當作‘偁’，凡銓衡當作‘稱’，今字通用‘稱’。

으로 𠄎나 再의 아랫부분의 형태 위에 손[爪] 모양이 더해진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갑골문을 모아보면,



으로 그 형태가 더 명확해진다. 『甲骨文小辭典』에서는



으로 한 부류를 再의 갑골문으로 정리를 하고, 또 한 부류는 ‘𠄎(稱과 통한다고 본다)’의 갑골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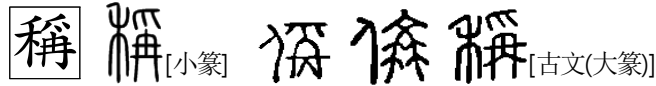


라 분류 정리하였다. 𠄎(혹 稱)의 형태는 사람[人]의 부견을 더한 것일 뿐, 再부분은 그 모양이 再의 갑골문과 같다.

원래 유례는 다르더라도 再과 𠄎, 稱은 통용된다고 본다. 王筠은 『說文句讀』에서 “鄭注『周禮』와 『儀禮』에 모두 ‘稱은 들다 이다’라고 하였고, 許慎이 井을 더한 것은 𠄎를 접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한 번 하고 또 하다(一舉而二)와 같은 것이다.”²⁷⁾라고 하였다. 이는 于省吾가 『殷契辨枝續編·釋再冊』에서 “再은 고자이고 稱은 금자다(再稱古今字)”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6) 『甲骨文在線字典 Chinese Etymology』 (<http://www.chineseetymology.org>)

27) 王筠, 『說文句讀』: 鄭注『周禮』、『儀禮』皆曰: ‘稱, 舉也.’ 而許君加‘井’字者, 亦以‘𠄎’折疊觀之, 猶之一舉而二也.



李孝定은 『甲骨文字集釋』에서 “契文 稱자는 손에 물건을 든 모양과 같아 들다 뜻을 가진다. 다만 무슨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을 따름이다. 于省吾가 稱과 稱을 古字와 今字라 한 것은 옳다.”²⁸⁾라고 하였다.

稱자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형태인 것은 확실하지만,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확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갑골문을 보면 확실해진다. 稱의 갑골문 형태는 윗부분에 아래로 향한 손 모양이 있고, 아랫부분에는 耨과 再의 하반부와 같다. 바로 화톳불을 피우는 재목을 쌓아 놓은 모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說文』에서 稱을 “爪와 耨의 생략형에서 비롯됐다.”라고 한 것은 따를 만하다. 단지 ‘한꺼번에 들다[竝舉]’라고 해석한 부분은 나중에 인신된 뜻이지 원래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耨의 아랫부분이지 중첩되거나 겹힌 부분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稱의 아랫부분은 역시 耨의 아랫부분과 같은 것이라 화톳불을 피우기 위해 쌓아 놓은 뿔나무 모양으로 祭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사를 거행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재목을 어긋매끼어 쌓는 뜻을 나타낸다고 봐야 하는 까닭이다.

실상 稱이나 耨, 再가 과연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확정짓기는 매우 어렵다.²⁹⁾ 이와 형태가 비슷한 갑골문을 보면



등이 있다. ①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윗부분은 양손 모양이고, 중간 부분은 耨의 아랫부분, 밑에는 土다. 土도 제사와 관련돼 있기에 이 한자 역시 어떤 형태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土는 祭臺이고 耨의 아랫부분 모양은 제사의 중심이 되는 행위의 핵심이거나 중요한 물건이며, 두 개의 손 모양은 그 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올리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글자는 갑골문 문장에서 명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地名으로 썼다. ②는 再와 土로 돼 있다. 갑골문 문장이 불확실하

28)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契文稱字象以手挈物之形, 自有舉義, 但不能確言所挈何物耳. 于氏謂稱古今字是也.

29) 전문 한자 연구서는 아니지만 한자의 원류를 설명한 『漢字密碼』(唐漢, 學林出版社, 2002年)에서는 모두 ‘생식기 숭배’나 ‘남녀 성교’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과한 면은 있으나, 이후 이런 유의 글자를 연구함에 있어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 그 일단은 다음과 같다: ‘耨’자는 남녀의 다리 네 개가 교차한 모양이다. 상하에 각각 ‘入’(八)을 더하여 성교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再’는 ‘耨’와 비교했을 때 하나의 원류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모두 남녀 간 성교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再’의 본의는 ‘연속하여 두 차례 성교하다’ 뜻을 가지는 것이고, 인신된 후 사물의 두 번 발생하거나 중복하여 출현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해석이 과연 가능한가?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런 해석은 계속될 것이다. 생식기 숭배에서 비롯된 갑골문들이 많고, 제사와 관련되어 남녀 성행위 중심으로 뜻이 파생된 한자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역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30) 『甲骨文字大字典』에서 인용. 명확한 뜻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여 어떤 뜻으로 썼는지 아직까지 판명되지 않았다. 단지 단순히 그 글자의 모양을 뜯어보면 祭臺 위에서 무엇인가를 올려놓거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偶과 土로 돼 있다. 갑골문 문장에서는 人名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발굴된 문장이 짧아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글자이다. 𦵏 행위를 하면서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 奉禮하는 모양도 있는 것이 偶이므로 祭臺에서 봉행하는 제사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再나 𦵏, 再는 역시 제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그 뜻의 쓰임새를 알아본 것처럼, 이제까지 발굴된 卜辭에서 𦵏은 ①만나다[遇], ②祭名, ③人名, ④方國의 이름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고, 再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무슨 뜻으로 썼는지 판명되지 않았으며, 𦵏은 ①祭名으로 祭物을 단에 올라 헌상하는 뜻, ②再冊(칭책, 왕명을 받아 그 영을 전달하는 것), 제사를 지냄에 있어 천거하여 령을 전하는 의식, ③인명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갑골문 문장을 보면, 제사나 사람, 사람이 사는 곳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𦵏의 아랫부분이 단순히 바구니 형태나 질그릇 형태로만 해석해서는 안 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燎祭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까닭이다.

IV. 결론

𦵏을 물고기 두 마리가 맞대어 있는 모양이거나 생식기 숭배에서 비롯된 토tem이 표현된 형태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 물고기와 관련된 다른 갑골문과 비교해서도 그 유사성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물고기 토tem이나 물고기 관련된 풀이는 다른 근거를 찾기 전에는 납득하기 힘들다.

그래서 화톳불과 관련해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본다. 燎祭와 관련된 것으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불을 붙여야 하는 화톳불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라 풀이된다. 재목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서로 어긋나게 걸치거나 맞춘 ‘어긋매끼어 쌓은’ 원추형의 대치된 모양인 것이다. 𦵏의 자형이 화톳불 형식으로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사 뜻을 갖는다. 갑골문 문장에서도 제사 뜻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그 근거는 충분하다. 제사를 지내는 대상 즉 천신에게 불꽃이나 연기를 통해 뜻이 전달된다는 의미를 갖기에 遯와 통하며, 화톳불을 피우기 위해 땔나무를 어긋매끼어 쌓기에 𦵏 뜻에 가짐으로써 構의 의미도 갖는 것이다.

再는 𦵏의 아랫부분과 상하에 횡으로 그은 한 획[一]을 더하여 만들어진 글자다. 이는 화톳불 장작더미가 지상에 설치돼 있고, 화톳불 불꽃이나 연기가 하늘에 닿는다 뜻을 내포하고 있는 회의자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다.

𦵏은 손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형태인데, 그 들고 있는 것이 𦵏의 아랫부분으로 화톳불을 피우기 위해 쌓아놓은 땔나무 모양으로 제사와 관련 있기 때문에 제사를 거행하거나 제

사를 지내기 위해 재목을 어긋매끼어 쌓은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할 수 있기에 ‘들다, 하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𠂔 행위를 하면서 사람이 다소곳이 앉아 봉례 하는 모양이 𠂔으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제사를 봉행하는 행위를 나타낸다고 풀이된다.

𠂔와 관련하여 𠂔, 再를 해석하는 것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나마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되는 것은 이 세 글자가 모두 제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甲骨文字典』, 四川辭典出版社, 2006.
 『形音義綜合大字典』, 正中書局, 1999.
 『甲金篆隸大字典』, 四川辭典出版社, 2008.
 于省吾, 『甲骨文字誥林』, 中華書局, 1999.
 李孝定, 『甲骨文字集釋』,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天字書社, 1965.
 王本興編, 『甲骨文小字典』, 文物出版社, 2006.
 王宏源, 『字裏乾坤(漢字形體原流)』, 華語教學出版社, 2000.
 唐治澤, 『甲骨文字趣釋』, 重慶出版社, 2002.
 左民安, 『細說漢字』, 九州出版社, 2006.
 唐 漢, 『漢字密碼』(上·下), 學林出版社, 2002.
 竇文字, 『漢字解說』, 吉林文史出版社, 2008.
 李樂毅, 『漢字演變五百例』, 北京語言大學, 2004.
 季旭升, 『說文新證』, 福建人民出版社, 2010.
 鄒曉麗, 『基礎漢字形義釋源』, 中華書局, 2007.
 裘錫圭, 이흥진역, 『중국문자학의 이해』, 신아사, 2010.
 許進雄, 조용준역, 『중국문자학강의』,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徐 山, 「漢字的方向、位置和筆順」, 『古漢語研究』, 1998年 第1期.
 ———, 『雷神崇拜——中國文化源頭探索』, 上海三聯書店, 1992.
 ———, 『漢語言的起源』, 四川人民出版社, 1998.
 ———, 「釋含有部件“止”的“盈”等五字」, 『殷都學刊』, 2002年 第2期.
 ———, 「釋“𠂔、再、𠂔」, 『中國文字研究』, 第5輯, 2006.4.
 許 科, 「古代燎祭用物及其意義」, 『四川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年 第3期.
 『甲骨文在線字典 Chinese Etymology』 (<http://www.chineseetymology.org>)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卜辭, 燎祭, 𣎵, 再, 𣎵, 考釋		
	영문	oracle, ritual, character 'Gou', character 'Zai', character 'Cheng', textual research		
<div>A study on '𣎵', '再', '𣎵' character</div> <div>Lee, Kweon-Hong</div> <p>In oracle(卜辭), '𣎵' character was used to mean that ① Meet(遇), ② The name of the ritual(祭名), ③ A person's name(人名), ④ Tribal Country's(方國 : The oldest in the world higher than the tribe more stable, independent political entity) name ; '再' character still do not know the meaning, did not interpret the meaning ; '𣎵' character was used to mean that ① The name of the ritual(祭名), Sacrifices offered on the altar, ② 再冊(It convey the king's commandment), ③ A person's name(人名). In oracle's sentences, it is related to ancestral rites, name of the ritual, person, and inhabited place. So '𣎵' character's under section can not explain basket form or earthenware. Therefore it is explained in terms of the '燎祭'(Liao sacrifice : One of the ancient ritual ; to burn such valuable things for worshipping heaven).</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권홍 / 李權洪 / Lee, Kweon-Hong		
	소 속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언어통상학과 교수		
	Em@il	lee@jeju.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6년 08월 24일	심 사 일	2016년 09월 25일
	수 정 일	2016년 09월 2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9월 29일